



2022년 파스카 성야(장등성당)



가톨릭마산

주님 부활 대축일 2023년 4월 9일 제2560호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 제1독서** 창세 1,1-2,2 또는 1,1.26-31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2독서** 창세 22,1-18 또는 22,1-2.9-10-13.15-18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제3독서** 탈출 14,15-15,1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제4독서** 이사 54,5-14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제5독서** 이사 55,1-11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제6독서** 바룩 3,9-15.32-4,4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제7독서** 에제 36,16-17.18-28
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서간** 로마 6,3-11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복음** 마태 28,1-10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 입답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제1독서** 사도 10,34-37.43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콜로 3,1-4 또는 1코린 5,6-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복음** 요한 20,1-9 또는 마태 28,1-10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 부활 대축일 담화문 4~5면



HAPPY
Easter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박윤식 에밀리오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이 아닌 부활의 영광을 알리는 식사 자리였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은 이 만찬을 끝으로 피눈물 나는 기도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는 돌아가셔야만 했다. 그래야만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길 수 있기에. 따라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미사 중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한다.

예수님 부활 확인은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의 돌이 치워진 모습에서 시작된다. 돌무덤의 입구가 봉해지고 열린 것만은 확실한데도, 언제 어떻게 치워진 것인지는 복음 어디에도 그 정황이 없다. 지금이야 CCTV로 보거나, 여러 매체가 실시간 중계를 할 만한 역사적 사건인데도 말이다. 다만 몇 사람이 무덤 안을 확인하고는, 부활의 근거로 그 현장을 리얼하게 소개한다.

첫째는 돌무덤이 비었다는 거다. 둘째는 아마포가 놓여 있는 모습이다. 그 생김새는 예수님 몸만 고스란히 빠져나간 긴 통 모양으로 놓여있었을 게다. 정확하게는 시신을 감싼 최초 아마포 원형의 그 모습은 대체로 유지한 채, 무게로 일정 부분 아래로 처져 가라앉은 상태였을 것이다. 셋째는 예수님 얼굴을 감췄던 수건이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있는 모습이다. 이는 누구도 시신을 손댄 게 아닌 것을 입증해주는 모습이라 여겨진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승천에는 뚜렷한 목격자가 있었다. 하나같이 생방송 하 다시피 했다. 다만 이 부활에는 사진마저 하나 없는 상황 종료 후의 현장 스케치, 그 후 제자들 증언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수차 나타나시어 당신 부활을 각인시키셨다. 그때마다 그들은 도깨비에게 홀린 듯 모두가 혼 나간 모습으로 뉘어져 있었으리라. 아무튼 복음마다 예수님 부활 후의 행적이 달라 다양한 목상을 자아낸다. 위험한 의심도 싱거운 논쟁도 좀 있었다. 다 같다면야 부활이 이처럼 신비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그렇지만 그분의 부활 증언 목격담이 다 다를지라도 그건 진리이고, 제자들과 목격자들에게는 신비였기에 영원히 성경 속으로 스며들어 녹았다. 그리하여 이 신비로 기독교가 부활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믿음의 신앙인이다. 부활의 신비, 그건 예수님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아름다운 축복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인 부활에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질 그분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신이다. 지금의 이 시각에도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부활은 여전히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중 성체를 모실 때만이라도 자신의 부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함양본당 운산공소 새 교구청 방문



함양본당 운산공소 신자들은 3월 29일 새 교구청을 방문하였다. 이날 운산공소 신자 32명은 어려운 상황에도 신축 기금 100만 원과 교구청 직원들을 위해 떡을 준비해왔다. 주용민 리노 신부(교구 사무처장)는 운산공소 신자들에게 신축 기금 봉헌에 대한 감사와 새 교구청 첫 방문의 환영 인사를 전하였다.

교구청 신청사 첫 직원미사 봉헌



새 교구청에서의 직원 첫미사가 3월 31일 신은근 바오로 신부(교구장 서리)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번 미사는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국장 신부와 직원 모두가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신은근 신부는 강론을 통해 새 교구청이 건립될 수 있도록 봉헌해 주신 많은 분들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혼인 무효 소송 절차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법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두렵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은 누구에게 더 많은 잘못과 책임이 있는지 따지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과는 다릅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왜 유지되지 못했고, 혼인의 합의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를 교회법원에서 확인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소송 전 준비

- ① **민법상 이혼:**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은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할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없을 때, 즉 민법상 이혼을 완료하고, 호적에 이혼 사실이 기재된 이후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본당 신부님과 상의:** 일반적으로 혼인 무효 소송의 변호인은 본당 신부님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 먼저 상의를 드리면서 무효 소송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혹시 본당 신부님께서 교회법원에서 일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호인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교회법원에 문의를 하면 교구 전담 변호인 신부님이 계시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소송서류 작성:** 무효 소송 준비서류는 <마산교구 홈페이지 ⇨ 교구청 ⇨ 법원 ⇨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10 준비서류 안내를 잘 읽어 보고, 2-010 소송제기서, 2-020 소송변호인 선정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본당 신부님이나 변호인 신부님과 면담을 합니다. 변호인으로 선정된 신부님께서 2-030 혼인 무효 소송 의뢰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서류와 함께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직접 교회법원으로 방문하여 접수를 하거나 ‘등기’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진행

- ① **소장의 수리:** 소송이 접수되고 수리되면 법원장 신부님이 소송을 담당할 재판관을 임명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통보하고, 청구인은 교구법원에 두 명의 증인과 함께 출석할 날짜를 공증관 수녀님과 정합니다. 이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교회법원에서 만나는 일은 절대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 ② **사실심리:** 청구인과 두 명의 증인이 교회법원에 출석하여 재판관 신부님에게 혼인생활에 대한 진술과 증언을 합니다. 재판관이 충분한 진술을 듣고 증거수집이 완료되면 소송기록 문서들을 공표하고 추가 의견을 듣습니다.
- ③ **판결:** 재판관은 소송당사자들과 변호인과 성사 보호관의 견해를 참조하여 혼인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판단하고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써 재판이 완료됩니다.

● 판결 후 상황

- ①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세례 대장과 혼인 대장에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며 새로운 배우자와 교회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 ② 혼인 무효 불가판결, 즉 유효 판결을 받은 경우, 여전히 처음의 배우자와 혼인 유대가 남아있기에 다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 증거를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고, 지나간 아픔과 상처를 다시 꺼낸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법원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행복한 혼인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교구에서는 현재 혼인 무효 소송의 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활담화문

교형 자매 여러분,

2023년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금년 부활절에도 주님의 메시지를 많이 묵상합시다. 다시 시작하라는 그분의 암시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는 약해졌지만,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습관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 참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도 여전합니다. 조용한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함께 걸을 때 깨달음을 쉽게 체험합니다. 은총으로 사는 이들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숨었지만 함께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변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울면서 찾습니다(요한 20,11). 천사를 만나자 ‘당신이 주님을 모셔갔다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시신이라도 뵙겠다는 열정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자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막달레나 역시 부활을 체험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신심행위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입니다. 느낌이든 깨달음이든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려는 행동입니다. 현실의 슬한 사건 속에서 가끔은 그분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한 번쯤은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막달레나의 변신을 체험하는 행위입니다. 금년 부활시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구는 새 청사를 마련했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헌당식은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기쁘게 참여하며 굳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성직자 수도자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부활축일과 함께 자연의 생명력은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움츠렸던 많은 곳에 부활의 힘은 분명 함께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갇혔던 라자로를 불러내셨습니다(요한 11,43).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두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삶을 보는 눈이 차가우면 많은 것들이 어둡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차디찬 죽음을 건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힘입니다. 밝고 따뜻한 부활의 에너지입니다. 그 은총을 청하며 천박한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활시기를 영적으로 지내려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면 혼돈은 떠나지 않습니다.



루카복음 24장에는 실망감에 젖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찾아가시어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처음 위치로 돌아가려 애쓰면 주님께서서는 눈을 뜨게 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스승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숭한 기적을 보았건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하는 말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 발현하신 스승님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꾸중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사건 이후 바뀝니다. 목숨까지 하찮게 여기며 스승의 부활을 사방에 전하러 다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외칩니다. 놀라운 변신입니다. 다시 살아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청해야 합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번 부활시기엔 청해야 합니다.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습니다. 부활사건은 '십자가 길 기도'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함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억울함을 만납니다. 견디기 힘든 억울함도 많습니다. 그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 고통에서 주님 뜻을 찾는 것이 영성생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반전이 옵니다. 상상도 못 했던 반전을 만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인생에서 부활은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부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부활절엔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살아야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따뜻한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은혜로운 부활시기 되십시오.

2023년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은근





기억할 선종 사제
조재영(안드레아) 신부
2016년 4월 15일

교구장 서리 동정

로템의집 20주년 기념식

일시: 4월 14일(금) 16:00
장소: 로템의집

교구/본당

교구청 직원 소풍

일시: 4월 14일(금)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1차

일시: 4월 16일(주일) 09:30
장소: 성지여고 체육관

복음화분과위원 연수

일시: 4월 16일(주일) 10: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4월 기도모임

일시: 4월 17일(월) 13:00~15: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1층 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일시: 4월 17일(월)~20일(목) 13:00~17:0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5층 파티마홀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교육비: 4만 원
문의: 055-270-1648, 1650

VIDES KOREA 창원 지부 회원 모집

내용: 여성, 아동의 인권, 교육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국제자원봉사단체 비데스에 회원 모집합니다.

대상: 14세 이상

주관: 살레시오 수녀회

문의: 010-3824-3096(지부장 박주연)

▶자세한 활동은 네이버에 '비데스 코리아'를 검색해 주세요!

MBTI로 새롭게 만나는 우리 가족

일시: 1차-4월 15일(토), 2차-4월 29일(토)
10:00~13:00

장소: 젊음의 집/ 참가비: 1인 2만 원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부모와 자녀
문의: 055-255-8295, 010-5558-3892

마음이 통하는 가족대화법

일정: 4월 18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10:30~12:00
장소: 젊음의 집/ 참가비: 10만 원(8회기)
대상: 모든 부모
문의: 055-255-8295, 010-5558-3892

성지에서 찾은 나만의 이야기

내용: 천주교 성지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
접수: 4월 3일(월)~5월 31일(수)까지
대상: 본당, 단체, 수도회,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문의: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
031-8019-5403 (https://mocatholic.or.kr)

2023년 성령쇄신 전국 치유대피정

일시: 4월 22일(토) 09:00
장소: 서울장충체육관
강사: 오웅진 신부, 윤민재 신부, 양창우 신부
미사집전: 구요비 주교 및 전국성령사제단
문의: 02-777-3211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산청 성심원 성심인애원 직원 모집

모집: 생활재활교사
접수: 3월 29일(수)부터 채용시까지
근무 지역: 경남 산청
▶자세한내용은 산청 성심원 홈페이지(http://www.sungsim1.or.kr/) 참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미사

일시: 4월 14일(금) 19:00
1부-공연, 2부-미사(19: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4월 1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세미나-제3강 성령안의 새 생활	송광배 도미니코 신부(前 전국성령봉사회 담당 사제)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월 15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4월 16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일본 홋카이도 순례 8월 16일 출발 3박 4일-209만원
■나가사키 순례 10월 16일/ 11월 6일/ 12월 4일 출발 3박 4일-125만원
■이집트 완벽일주(성서학자 동행) 11월 1일 출발 14박 15일-650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꽃오션과 본재를!

40년 본재 경력, 본재/본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광지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오션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본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2023년 공소 순례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교구장 사목교서 ‘마음을 다하여’의 정신을 따르기 위한 실천으로 공소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교구민이 조용한 가운데 질서 있게 참여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1차로 진주지구 내 26개 공소를 방문함으로써 신앙선조들의 신앙을 느끼며, 자신의 신앙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또한 열악한 공소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살펴보면서 함께하려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교구 레지아의 협조와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교우 가정에 ‘교구장 축복장’이 전달되어 참으로 흐뭇하였습니다.

2차 공소 순례는 거제지구 13개, 마산지구 6개, 창원지구 4개 공소로 총 23개의 공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제지구 공소로 가배, 두동, 법송, 배둔, 사랑, 산달, 상리, 예구, 육지, 울포, 탑포, 학동, 황리공소가 있고 마산지구에는 구읍, 부곡, 수정, 신반, 장암, 칠곡공소, 창원지구에는 성심원, 대산, 장방, 웅천공소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낸 후 4월 10일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11월 30일에 순례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2023년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실천 방안으로 순례에 동행하는 교우들과



이한규 안드레아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복음화분과위원장



거제 진목정공소

또 순례 중 만나게 되는 교우들과의 사이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면 참 좋겠습니다. 순례 책자는 본당 사무실과 레지아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교우들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사랑의 발걸음으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3년 공소 순례 일정 및 내용

- 기간: 4월 10일(월)~11월 30일(목)
- 순례 마감: 11월 30일(목)까지 우체국 소인 유효
- 대상: 교구 전 신자
- 순례 책자: 본당 사무실, 교구 레지아, 평협 사무실에서 판매
※순례 완주자 교구장 축복장 수여(스탬프는 공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평협 사무실 055·249·7114, 평협 복음화분과 010·9349·5088
교구 레지아 055·249·7115
- ▶공소 순례 밴드 가입: NAVER에서 ‘마산교구 공소순례 밴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판관기 8장 29절~9장 57절)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미디안족과의 전쟁이 끝나자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아내가 많았던 그에게는 일흔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스켄의 소실에게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 신을 섬겼고, 기드온의 업적도 잊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거절하였던 왕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먼저, 그는 스켄의 외숙들을 찾아가 혈연에 호소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의 외숙들은 스켄의 지주들을 찾아가 지연에 호소함으로써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스켄의 지주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 보관된 돈 일흔 세켄을 아비멜렉에게 내주었고,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건달들을 사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형제 일흔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합니다. 막내인 요탐만 숨어 있다가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스켄인들은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판관 9,1-6에는 아예 하느님이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에 바탕을 둔 선택이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요탐은 그리짐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스켄의 지주들에게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비멜렉도, 스켄의 지주들도 모두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선언하고 그는 브에르로 달아납니다.

아비멜렉의 다스림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삼 년이 지나자 스켄의 지주들은 그를 배반합니다. 판관기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기드온의 일흔 명의 아들의 피를 되갚으시려고 스켄 지주들에게 악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중원인론에 입각한 역사 해석의 한 예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악령을 보내신 경우는 이곳 외에 1사무 16,14에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령은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스켄 지주들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자 아비멜렉에게서 돌아섭니다. 먼저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행인들을 약탈하여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아비멜렉의 지지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 이주해온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지지합니다. 가알은 스켄 지주들의 지지를 받아 공공연히 아비멜렉을 비난합니다. 이들이 반란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아비멜렉은 야간 매복 작전으로 스켄을 공격합니다. 아비멜렉은 스켄 성읍의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읍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엘 브릿 신전의 지하실로 피신한 스켄의 지주들을 벌하기 위하여 생 나뭇가지를 베어 신전 지하실 쪽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요탐의 저주대로 아비멜렉의 불로 그곳에 숨어 있던 천 명가량의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이어서 그는 테베츠로 진군하여 그곳의 성읍을 함락시켰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탑의 옥상으로 피신하자 이번에도 탑에 불을 지르려고 탑 어귀로 다가갑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그를 향해 던진 맷돌 위쪽에 맞은 아비멜렉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판관기의 저자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악도 하느님의 힘을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를 드높이고 내세우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욕망을 잘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아비멜렉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가 있었던 스켄의 바위에 앉아 과연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